



진주 혁신도시 내공사 신사옥 조감도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건설관계자 회의 개최 ○ 경남도, 1/4분기 계약심사결과 144억원 예산 절감 ○ 경남도, 내본사 신사옥 건축허가 사전 승인 ○ 아름다운 주택 보러 오세요... ○ 경남도, 2012년 춘계 도로정비 실시 ○ 마창대교 영업소에 고객쉼터 조성한다. ○ 낙동강 자전거 길 개통식 및 자전거 대행진 개최 ○ 경남도, 고층건축물 건축소방 분야 합동 점검 ○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 완료 ○ 2013년도 사방사업 신청하세요 ! ○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상반기 착공 ○ 경남도, 감리전문회사 상반기 실태조사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11 ○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대박 행진 ○ 경남에서 시외버스 교통카드 이용 가능 ○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관 향상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비리업체 턴키공사 수주 못 받는다. ○ 도심내 다세대 「새집」 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 ○ “안방에서도 우리땅 독도에 갈 수 있다” ○ 해외도시개발 진출지원 국토부 입법예고 ■ 칼럼(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위원장) 19 -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해외도시개발 전략 - ■ 신기술 정보 23 ■ 건설기술심의 현황 24 ■ 계약심사 현황 24 ■ 기술인 나눔 정보 25
---	---



동남권 첫 공동사업 광역교통본부 가동

- 본부장직은 시도별 2년씩 순환
- 5월 29일 출범식 갖고 본격 업무



〈경남부산 교환근무 후 만난 김두관지사와 허남식시장〉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가 오는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간 상생 광역화 사업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1일 교통본부(양산시 동면 새마을회관 소재) 파견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교통본부는 양산시 1명(6급), 부산시 3명(4급 1명, 6급 2명), 울산시 1명(5급) 등 7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꾸려진다.

외부 교통전문가(6명)를 포함해 전체 정원은 13명이다. 이들 파견 공무원은 우선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본부장직은 시도 별로 2년씩 돌아가는데, 부산시가 첫 순번을 맡았다.

교통본부는 3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정해졌다. 각종 광역교통 현안과 대중교통 환승, 광역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다룬다.

거제~부산(거제대로) 광역버스 운행, 진해~부산 시내버스 노선 조정 문제도 이 기구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며, 진해~부산, 양산~부산 간선급행버스 체계, 광역순환도로망 구축 등도 주요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본부 설치로 동남권 3개 시도 간 광역교통 업무의 상시 조정과 협의가 가능해졌다.

향후 양산~부산 지하철 추가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 때 신속한 협의를 통해 3개 시도에 가장 적합한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예산낭비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통본부 설치로 상시 협의체제를 갖춰게 돼 웬만한 현안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년 넘게 끌어 온 거제~부산 시내·시외버스 문제가 광역교통본부 출범을 계기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경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 특위도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동남권 광역연합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자료 : 교통정책과 광역교통담당 (055)211-4481

경남도, 지방도사업 건설 관계자 회의 개최

- 4월 12일 경남도청에서 지방도사업
조기집행 및 성실시공 다짐



〈성실시공 다짐 건설관계자 회의 전경〉

경남도는 4월 12일 경남도청에서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도내 지방도 건설현장의 재정조기 집행, 부실공사 방지 및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현장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것이다. 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실시공 다짐, 지방도사업 3개년 계획의 조기 완료를 위한 설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및 도내업체 참여 확대방안, 해빙기와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이며, 각 현장별 보고가 있었다.

특히,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을 64% 이상 달성 및 지방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율 50% 이상 확대, 지역 건설용 자재, 장비, 인력 사용의 60% 이상 참여를 요청하였다.

경남도는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방도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별 우선투자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책임감리원 및 현장소장은 각 현장별 조기집행 추진실적과 연차별 예산의 선투자 방안 등 정확한 공정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보상 및 민원처리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계획 설명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시공을 다짐하였다.

▶ 자료 :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3

경남도, 1/4분기 계약심사 결과 144억 원 예산 절감

- 6.5% 예산 절감 및 조기집행에 기여

경남도는 3월말까지 시·군(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한 결과 1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일 이내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4.2일로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조기 집행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1/4분기 계약심사 실적으로는 공사분야 절감액 비중이 6.8%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용역(4.7%) 및 물품(3.2%)은 반복사업에 대한 이전 심사단가 적용으로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별로 보면 시(市)부의 경우 63억원(44%), 군(郡)부의 경우 81억 원(56%)이며, 함양군이 22억 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비경제적인 공법, 구조계산 보다 과다 설계한 부분, 도면과 상이한 과다 수량 산출분 등을 최적설계안으로 감액 조정 비현실적인 과다한 인력품 적용을 합리적인 장비조합품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유사공사로 적용하였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심사 사례집과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시·군 및 사업부서에 배부하여 원가산정의 오류를 해소하는 한편, 계약심사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확대·시행하여 계약심사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구 분	심 사 결 과(억원)				비 고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계	240	2,210	2,067	144 (6.5%)	전국 6.2%
공사분야	129	1,915	1,785	131 (6.8%)	
용역분야	41	255	243	12 (4.7%)	
물품구매	70	40	39	1 (3.2%)	

〈2012년 1/4분기 심사 실적〉

▶ 자료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3

경남도, LH본사 신사옥 건축허가 사전 승인

- 관련 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승인



〈진주혁신도시 LH공사 신사옥 조감도〉

경남도는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트 '이전9' 블록에 지상 20층, 연면적 141,266.37㎡(42,807평)의 규모로 건설되는 LH본사 신사옥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진주시로부터 4월 2일 접수되어 경상남도 건축위원 사전검토 및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25일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위한 제5회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말까지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한 LH본사 신사옥 건축물은 Millenium Tree(천년나무)를 콘셉트로 설계되었으며, 새로운 천년가치의 시작과 친환경건물로서 명실상부한 저에너지 환경가치와 비전을 구현하고, 천년의 세월동안 자연과 함께 성장할 천년나무, 오랜 세월 진주에 뿌리내리고 갈 살아갈 LH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국내 명실상부한 저에너지 환경가치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경사형루버, 외차향계획, 고단열시스템, 최적창면적비를 도입한 패시브 디자인을 채용하고,

태양광발전, 태양열 급탕, 우수 및 중수 사용, 지열냉난방, LED조명 등 액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취득을 통해 친환경건축물로 지을 예정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2012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0월경 공사완료 및 청사 이전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해 8월 공사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6

아름다운 주택 보러 오세요...

- 4월 16일~8월 31일 시·군 순회 전시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아름다운 주택>

경남도는 매년 당해연도에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건축경관 구성에 기여한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도 도내 시·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주택 40동을 선정하여 설계자에게는 도지사표창을,

건축주에게는 우수주택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경남도는 2011년도 우수주택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16일 창원시를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도내 시·군 순회전시를 실시한다. 이번 전시되는 주택들은 단순한 주거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경남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사지붕 및 조형지붕을 설치하거나, 이웃주민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담장을 목재, 석재 등 친환경적인 자재의 사용, 조경으로 설치하는 등 간결하고 아름답게 건축된 주택이다.

연번	시·군	전시 일정	전 시 장 소
1	진해구	4.30 ~ 5.04	구청 민원동(2층)
2	거제시	5.07 ~ 5.11	시청 민원실
3	통영시	5.14 ~ 5.18	시청 2청사 전시실
4	고성군	5.21 ~ 5.25	군청 로비
5	사천시	5.28 ~ 6.01	시청 민원실, 로비
6	남해군	6.04 ~ 6.08	군청 로비
7	하동군	6.11 ~ 6.15	군청 로비
8	진주시	6.18 ~ 6.22	시청 로비
9	산청군	6.25 ~ 6.29	군청 로비
10	함양군	7.02 ~ 7.06	군청 로비
11	거창군	7.09 ~ 7.13	군청 로비
12	합천군	7.16 ~ 7.20	군청 로비
13	의령군	7.23 ~ 7.27	군청 로비
14	함안군	7.30 ~ 8.03	군청 로비
15	창녕군	8.06 ~ 8.10	군청 민원봉사과 로비
16	밀양시	8.13 ~ 8.17	시청 민원실 앞 로비
17	양산시	8.20 ~ 8.24	시청 2청사 1층 로비
18	김해시	8.27 ~ 8.31	시청 별관 2층 로비

▶ 자료 : 친환경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경남도, 2012년 춘계 도로정비 실시

- 국도 및 지방도 등 1만3천790개 노선 대상
- 4월 6일부터 27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도로안전사고 예방

경남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도로(14,129노선 8,802Km)에 대하여 겨울철 기간 중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지거나 기능이 저하된 각종 시설물을 중점으로 시·군별로 일제히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도로표지판, 제설작업 후 제설용 모래제거 등이다.

또한, 일반적인 노면 평탄성 확보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위험지구 등에 대하여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군에서 일제 정비한 도로에 대하여 5월 중 경남도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춘계 도로정비는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과 연계하여 경남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알리고, 도민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정비대상 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도로연장(km)			
		계	포장도	미포장도	
계	14,129	8,802.8	7,556.1	1,246.7	
국도	소계	24	814.4	814.4	-
	일반	17	440.0	440.0	-
	위임	7	374.4	374.4	-
지방도	소계	47	2,156.6	1,960.9	195.7
	국지도	7	366.0	334.0	32.0
	지방도	40	1,790.6	1,626.9	163.7
시도	13,667	2,939.9	2,939.9	-	
군도	391	2,891.9	1,840.9	1,051.0	

▶ 자료 : 도로과 도로시설팀당
(055)211-4674

마창대교 영업소에 고객센터 조성한다

- 올해 6월경 완공 목표



<마창대교 영업소 고객센터 조감도>

경남도에서는 마창대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창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주)마창대교에서는 4월중 건물 증축공사에 들어가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창원도심을 통과하는 10.47km(접속도로 구간 포함)의 마창대교에는 영업소 이외의 화장실, 줄임예방을 위한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증축되는 건물에 설치되는 고객편의 시설로는 1층에는 화장실이 3층에는 휴식과 전망이 가능한 휴게공간 및 마창대교 모형이 전시되며, 고객 주차장도 확장된다. 특히, 고객쉼터 주차장이 조성되면 영업소 방문차량과 요금소 통과 후 일시 정차 차량들이 영업소 앞 갓길에 정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차로 이용객들 및 영업소 방문객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마창대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량환경을 조성하여 마창대교 이용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자료 : 도로과 민자지원담당
(055)211-4684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 대행진 개최

-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경남도는 오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 개통행사 및 자전거 퍼레이드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남도, 함안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으로 주관하는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은 389km로 경북 안동 ~ 경남 ~ 부산 을숙도까지 연결되고, 경상남도 구간은(창녕 이방 ~ 합천 · 창녕보 ~ 합천 청덕 ~ 의령 낙서 ~ 창녕 남지 ~ 함안 칠서 ~ 창녕 · 함안보 ~ 창녕 길곡 · 부곡 ~ 창원 대산 ~ 밀양 하남 · 삼랑진 ~ 양산 원동) 123km 길이의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었다.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공식행사가 열렸고, 식전행사로 함안 화천농악대의 타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공식행사에서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축사와 저소득층 자전거 기증 행사 및 자전거타기 실천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개통행사 후 자전거 전문 동호인 8백여명과 일반 참가자 2백여 명이 참여하는 자전거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밀양시 하남까지 왕복하는 전문동호인 코스(56km)와 창녕군 길곡까지 왕복하는 일반참가자 코스(14km)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식후행사로는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과 간단한 장기자랑도 개최하며 자전거 역사를 볼 수 있는 자전거 사진전도 열렸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경남지역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함안수박 시식 코너도 마련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을 홍보하고 자전거의 전국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민들이 여가활동이나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055)211-4346

경남도, 고층건축물 건축·소방 분야 합동 점검

- 불법용도 변경, 소방 안전관리,
피난시설 여부 등

경남도는 고층건축물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행위 단속과 소방 분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건축부서와 소방서가 각각 점검할 경우 초래될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시군 건축부서와 소방서 간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7월, 창원시 등 8개 시군 16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불법 용도변경, 방화구획, 피난계단, 마감재료 등 건축·소방분야 11개 항목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개선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건축·소방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건축부서와 소방부서의 협조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6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원 대상사업 선정 완료

- '14년까지 18개 시군 21개 사업

총 6천 839억원 투입하여 본격 추진

경남도는 4월 4일 민선 5기 경남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21개 대상사업을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4년까지 18개 시·군, 21개 사업에 총 6천839억 원(국비 830억 원, 도비 3천641억 원, 시·군비 2천98억 원, 민자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모자이크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4월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마다의 색깔과 특성이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또한, 시·군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남도는 시군의 개성 있는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도내 전역이 조화롭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10개 시·군, 11개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도비 264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시·군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573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인 통영 국제음악당은 현재 공정을 55%로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산업 분야의 뿌리기술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의 R&D지원시설인 진주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139억 원을 투자하여 시험 생산동을 준공계획이며, 김해일반산업단지 내 시설계획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건축물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3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연석과 풍난 등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이 활용되는 거제 자연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재일본 교민과 연계하여 일본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남해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본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 특성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의 경우 앞으로 생산유발효과 86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7억 원, 소득유발효과 181억 원, 세수유발효과 44억 원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체계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균형발전과 균형정책담당
055)211-2614

2013년도 사방사업 신청하세요!

- 4월 30일까지, 해당 산림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경남도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3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산주들과의 협의 및 작업로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접수된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8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여 타당성 평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착수한다.

사방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대형화 및 국지화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표토 및 유기물의 유실을 차단해 계류의 안정화 등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며,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이익 증진과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에는 산지보전 및 산사태 예방사업과 집중호우 발생 시 계류의 유속을 감소시켜 산림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시키는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파도나 해일에 의한 해안침식방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체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 친환경 사방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며,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산지보전 12ha, 산사태예방 4ha, 계류보전 49km, 사방댐 64개소 등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에 284억 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비를 68%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방사업 신청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의 사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인위적인 훼손지역, 중장비 진입로가 없는 대상지는 사방사업 부적격지로 분류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산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방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사방사업 시행 전경 - 사방댐(산청)>



▶ 자료 :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055)771-6564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상반기 착공

- '2017년 개통... 신항~남해고속도로
18km 17분 단축 기대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가 6월 중 착공되어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간 운행거리가 18km, 통행시간은 17여 분 단축된다. 또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국도 58호선 및 소사-녹산간 도로 등 김해-진해권 및 부산신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연장 15.26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4. 16일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총 5,020억원(민간 3,846억, 국고 907억, 보상비 267억)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롯데건설(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부산신항제1배후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돼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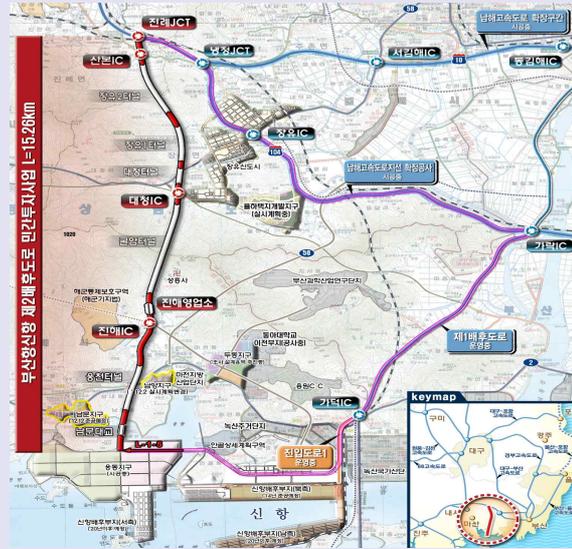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방침이다.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 (1,473원/대, '04.4말 불변가 기준)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착공으로 인해 거가대교 개통과 부산항신항의 물동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기존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국도 58호선 및 소사-녹산간 도로의 교통 지정체 완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18.3km, 통행시간 17여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부산항신항 배후에 조성될 대규모 물류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유발교통량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통과교통의 편익효과(사회·경제적 편익 689억원/년 예상) 증대 및 부산항신항의 기능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해-진해군의 체계적인 지역발전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신항제2배후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항이 될 부산항신항과 내륙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민간재원 투자로 건설되는 민간제안사업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02)2110-8726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위치도〉

경남도, 감리전문회사 상반기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

- 등록기준(인력, 자본금, 장비) 확인 및 현지 조사 진행

경남도는 오는 5월 1일~5월 31일 기간 동안 도내 44개 감리전문회사의 인력, 자본금, 장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감리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한건설감리협회 및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면허 보유 현황, 기술자 등록 현황, 보유 장비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감리업무 수행 실적등을 확인하게 되며, 1차조사(서면조사) 및 2차조사(현지실사)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미이행 및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조치하고 업체 애로사항 청취 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자료 : 회계과 기술심의담당
055)211-3555



지식정보

고성공룡세계엑스포 대박 행진

- 개장 20일 만에 37만 명 넘어,
목표치인 142만 명 초과 달성 기대



〈공룡세계엑스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한 김두관지사〉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지난달 30일 개막 이후 20일이 지난 4월 18일까지 37만 2천917명이 다녀가는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일요일인 지난 4월 15일에 4만 6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찾았으며, 평일인 4월 18일에도 2만2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이처럼 많은 관람객이 엑스포 현장을 찾게 된 것은 2006년과 2009년 2차례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고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공룡나라를 채택하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한반도공룡 발자국 화석관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5D 360도 입체영상관이다. 최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해 360도 서클 스크린의 전면 영상에서 갑자기 나타난 공룡의 거대한 입이 관람객을 통과해 후면 영상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입체영상으로 사실감을 극대화한 것이 압권이다.

4월 18일 현장을 찾은 최모씨는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전시장을 이해하기 쉽게 꾸며져 있으며, 특히 5D 입체영상관은 특별한 체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 꿈의 나라를 체험하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았다”고 했다.

이학렬 고성군수는 “이번 공룡엑스포의 핵심은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엑스포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주말 날씨만 받쳐 준다면 당포 목표로 한 142만 명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8일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예정 없이 엑스포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엑스포를 찾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엑스포 성공을 확신했다.

2012년 고성공룡엑스포는 ‘하늘이 내린 빛물, 공룡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6월 10일까지 73일간 열린다.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열리게 된다.

▶ 자료 :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055)211-2063

경남에서 시외버스 교통카드 이용 가능해진다

- 이르면 상반기중 시외버스 교통카드 상용화 서비스 개시

경남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수단간 연계호환 및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외버스 교통카드 도입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르면 2012년 상반기중에 상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전 지역 및 모든 대중교통 수단간에 하나의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ONE CARD ALL PASS)하게 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화에 대비하고 민선 5기 공약인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도내 대중교통 교통카드는 창원시 등 8개 시(市)와 함안군 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에 도입되어 무료 환승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평균 이용률이 72.5%에 이르러 활성화되고 있으나, 시외버스에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교통카드 시스템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년 6월 교통카드 운영사 선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요금정산 시스템 개발, 요금지불

단말기(선·후불카드) 및 충전 단말기 설치, 자동음성안내방송 등의 시스템 구축을 올해 1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어 4월까지 교통카드 시스템의 오류방지를 위한 현장 적용 테스트 기간으로 실제 운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한 카드 단말기 작동 및 거래 데이터 송수신 등의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운용상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이르면 상반기 중 교통카드 이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시외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도입으로 이용요금 전자지불이 가능해져 충전 터미널에서의 승차권 구매 등의 불편이 없어지고 운송업체의 수입금 관리 전산화로 인한 정산의 투명화로 경영개선 및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로 보다 신뢰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료 : 교통정책과 광역교통담당
055)211-4484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관 향상 추진!!!”

- 환경변화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 국건위 업무보고(12.4.25)에서 국토경관 향상 방안 보고 및 토론 실시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4월 25일(수, 11:30분) 청와대에서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및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핵심성과 및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정 위원장은 핵심성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품격에 걸맞는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Design Korea)”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마무리 지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 발주제도 개선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활동성과로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토경관의 향상을 위한 디자인 총괄조정체계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광역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최초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10.5)」과 광역자치단체에 지역건축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건설을 위한 중장기 건축정책기틀을 마련하였다.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국가와 지역 대표거리 조성사업”, “지역의 디자인 시범사업” 등 성과와 그동안 지역과 현장을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어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고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였다.

금년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별개로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교각 등 SOC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경관관리 향상방안도 수립하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기준도 마련하여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관 전문가도 파견할 계획이다.

낙후되어 있는 국내 건축설계의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건축디자인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한 우리 전통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마을(300세대 규모), 한옥 컨벤션센터 및 한옥호텔과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반사율, 건물 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토록 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생활형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토록 하는 등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순회포럼, 국가와 지역단위의 건축문화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토론 안건으로 국토연구원 원장(박양호)이 최근 주택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상정 국건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구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보고 및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진흥과
02)397-83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 ~ 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나,

*공사규모별 직접시공비율(%) : (3억미만) 50, (3~10억) 30, (10~30억) 20, (30~50억) 10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의무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비리업체 턴키공사 수주 못 받는다.

- 국토부,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체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턴키사업은 최저가 사업과는 달리 수주업체 선정에 위해 기술력을 평가(설계심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상급자나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 이내)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시 국토해양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앙부처 턴키비중이 약8%(대형공사 89건중 7)인 반면, 지자체는 약52%(대형공사 85건중 44)이며 이중 턴키발주 기준에 미달된 공사가 39%(44건중 17)

** '11년 지자체 입찰방법 심의결과 87건 중 1건만 원안과 다르게 의결(98.9%)

안정적·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382

도심내 다세대 「새집」 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

-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 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 *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 4,248,619원,
 - 4인 이상 가구 4,719,368원,
 - 5인 이상 가구 4,929,228원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 *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내주 월요일(4.9)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개발과
02)2110-8748

“안방에서도 우리땅 독도에 갈 수 있다”

- 독도 가상체험 4D 종합시뮬레이터와 스마트 앱개발



〈독도 3D 입체 영상 화면〉

국토해양부는 독도와 독도주변 바다 속 세계를 가상체험할 수 있는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와 모바일 환경에서 독도 현황과 독도주변 그리고 수중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는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수행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연구”의 성과물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한 것으로, 독도의 모습과 주변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현상과 생태계 변화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독도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다.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는 3D 입체영상과 영상에 맞춰 움직이는 모션베이스로 구성되며, 처음 독도가 생성되는 화산 폭발 순간과 현재의 독도 상공에서부터 바다 속까지 이어지는 아름답고 신비한 독도의 모습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다.

독도 3D 입체 영상물은 전국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은 금년 4.3부터 개최되는 “독도전시회(교육과학기술부 주최)”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션베이스를 갖춘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는 금년 7월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독도관련 앱과는 차별화하여 독도의 일반현황과 해양과학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형 앱’과 가상 보트를 타고

독도와 주변 해양을 체험할 수 있는 ‘3D 체험형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상여건 등으로 찾아가기 쉽지 않은 독도를 안방에서도 흥미롭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독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도 해양과학연구의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과학적 궁금증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독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금년 4.9경부터 배포될 예정인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갤럭시폰 사용자) 및 애플스토어(아이폰 사용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와 스마트 앱 개발은 독도에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많은 국민들에게 독도와 그 주변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독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영상 화면〉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66

해외도시개발 진출지원 국토부 입법예고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40일간(기간 4.16.~5.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
- ②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
 -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하고
 -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추가함
- ③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함

- ④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
02)2110-8359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해외도시개발 전략



●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을 주도하는 선진 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10년 서울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3월 2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53개국과 4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핵안보란 주요 이슈뿐 아니라 각국의 주요 현안들까지 논의되는 정상회의장으로 활용되었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 국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유치하게 되므로 세계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국가가 된다.

2011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는 대한민국이 연간 무역 1조 달러(수출 5,150달러, 수입 4,850달러)를 달성한 세계 아홉 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거대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국격 상승의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그 동안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시작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가발, 신발, 완구, 의류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출발하여 1974년에는 10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제철산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대규모 장치 제조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석유화학제품, 건설, 플랜트 수출로 1988년에 1천억달러, 2005년에 5천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세계 각국과 FTA협정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여 전세계무역을 선도하는 FTA 무역의 허브국가로서 개도국에서 선진무역국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구 5천만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국 밖에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력의 상승과 국력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청년실업률 증가, 고소득층과 극빈층으로 양분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는 왜곡된 사회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창출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수출에 대한 이익이 전국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새로운 경제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역 1조 달러의 신화 속에 숨어있는 외화내빈의 사회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내 건설수주부진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앞으로 무역 2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 등 첨단 원천기술과 대단위 플랜트 및 첨단도시 수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1년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중동·아시아지역의 플랜트 사업 위주에서 도시수출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건축정책의 하나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개발능력과 경험을 가졌으므로,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해결방안은 신재생 에너지 및 IT기술 등을 활용하는 최첨단 기술의 종합적인 해외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한다. 해외도시개발은 도시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건설(토목 및 건축), 정보통신 및 교통체계 등 첨단 신도시 관리와 경영, 무역 등 종합적인 산업수출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경제영토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포츠담 신도시 개발 사례>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시개발(재생) 사업>

개발도상국의 산업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개발시장은 확대되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설시장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도시 인구 전망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증가하는 13억 명의 도시인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구 39만명의 분당급 신도시가 3,000여개가 필요하게 된다. 도시수출에 의한 외화취득은 자동차, 반도체, 플랜트 등의 수출품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해외도시개발 시장에 앞 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인도 DMIC사업에 진출하여 스마트 시티의 전 설비를 일괄수주하고 델리-뭄바이간 산업철도 건설, 계획인구 3,500만 인을 위한 24개의 산업·주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폴은 중국의 수저우 공업도시, 텐진 환경도시, 광저우 지식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지멘스는 아부다비 마스다르시와 전략적 제휴 체결로 첨단 생태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건설사가 독립적으로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도시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부절차의 협의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조건의 변경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2011)는 해외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현지국 정보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둘째 사업제안단계 및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총당의 부담, 셋째 해외도시개발이 기본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종합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다섯째 현지국에서의 관련제도미비와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민간기업으로서의 협상력 부족, 여섯째 한국의 신도시건설 노하우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 하마비 허스타드 친환경 도시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변공간 조성 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부처간 상호협력과 체계적인 민·관네트워크구성으로 해외도시개발을 지원하는 총괄 조정기구와 금융지원제도, 지원관련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해외도시개발 전략으로서의 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주택건설분야 서민주택 50만호 건설 등, 친환경 도시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총 667억 달러(약74조원)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에 20개의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리비아의 1200억 달러 규모 전후복구 및 재건사업이 중동의 차세대 대형 프로젝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제2의 중동 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를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항만공사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중동건설 수주로 경제위기의 진원지에서 활로를 열었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바 있다.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은 원유가 급등으로 벌어들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의료시설의 병원건설, 4세대(4G) 이동통신망 LTE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인력 확충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되고, 외교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최첨단 설계와 기술을 동반한 해외도시개발이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빌리지 신도시 개발>



<중국 상하이 하버뉴시티 조성 사례>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 [윙앵커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장평건설
	(주) 포스코건설
	(주)삼안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52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돌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한진중공업
	(주)진산이엔지
	(주)토탈지오이앤씨
	현대엠코(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50호
- 기술분야 : 토목 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마이크로파일공법의 지반보강에 있어 지반 천공 후 보강재를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보강체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하여 1차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주입관을 세척하여 2차 이상의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파일공법의 지반보강에 있어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1차 중력식 그라우팅 후 주입관 세척과정을 거쳐 2차 이상의 압력식 그라우팅을 하는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의령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외 2건
- 심의일자 : 2012. 04. 25 (수)
- 요 청 자 : 의령군수, 거창군수, 창원시장,

사 업 명 (발주청)	사 업 개 요	요청사항	심의결과
의령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의령군)	· 위 치 :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 사업내용 : 취·정수시설(3,000㎡/일), 관로 25.6km · 사 업 비 : 277억원(공사비 236, 보상비 등 41)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실시설계 (적정성)	조건부 의결
거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거창군)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95㎡/일 · 사 업 비 : 163억원(공사비 148, 보상비 등 15) · 사업기간 : 2012 ~ 2013년	실시설계 (적정성)	조건부 의결
북면감계 시영임대 아파트 건립공사 (창원시)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 사업내용 : 임대아파트건립 560세대 · 사 업 비 : 583억원(공사비 406, 보상비 등 177)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평가)	조건부 의결 (설계적격)

▶회계과 (O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2년 4월 현재 (누계)	계	312	307,290	286,459	20,831		
	공사	토목	135	206,370	190,566	15,805	
		건축	25	32,988	31,361	1,627	
		기타	15	30,125	28,542	1,583	
	용역	53	32,457	30,858	1,599		
	물품	84	5,350	5,132	217		

▶회계과 (O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05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09.27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201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

1. 일시 : 2012. 5. 14일(월) ~ 15일(화)
 - ▷ 1일차(5.14)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공법전시회 등
 - ▷ 2일차(5.15) : 현장견학(테크니컬투어) - 4대강사업(한강) 현장일대
2.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3. 주제 : 4대강 사업이후의 하천관리
4. 주최 : 한국하천협회
5. 후원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하천협회 홈페이지 (<http://www.riverlov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2012. 5. 17(목) ~ 18(금)
2. 장소 :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3. 행사내용 : 초청강연, 기획세션, 국제세션, Student Competition, English Session, 논문발표회, 시니어세션, 리셉션, 전시회 등
4. 사전등록
 - 1) 등록기한 : '12. 3. 21일(수)~4. 23(월)
 - 2) 등록방법 : 온라인등록 (홈페이지→ 학회활동→학술발표회→ 사전등록)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학회 홈페이지 (<http://www.kwr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